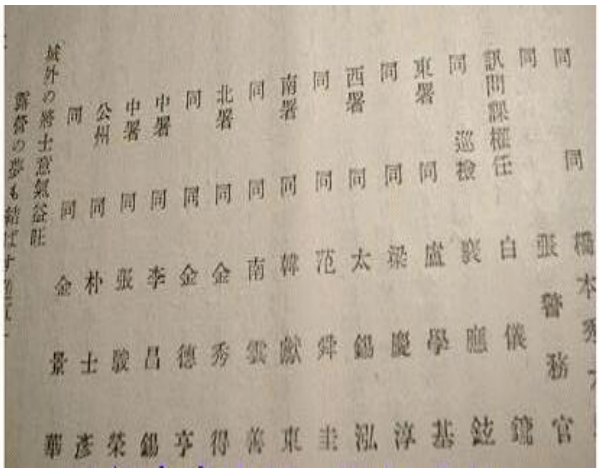
「慰安婦強制連行説」は韓国の恥
虚構を暴き日本と韓国の名誉を守ろう！

韓国で従軍慰安婦問題を糾弾している市民団体「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はそのHPで「日本軍慰安婦問題は第二次世界大戦時、日本帝国主義がアジアの女性十乃至二十万人を国家制度で企画立案し、組織的に強制連行し、日本軍の性奴隷とした世界でも類を見ない残酷な犯罪である。」と日本を非難しています。しかし日本人官憲は当時朝鮮半島に極少数しか存在していません。1919 年の三一運動以降、朝鮮半島では日本軍は駐屯地から出ておらず、1938 年日中戦争開始以降日本人警官は次々に召集されて戦地へ行き、日常的に住民と接する警察官のほとんどは朝鮮人でした。韓国の主張通りなら、極少数の日本人の命令に従って朝鮮人自らが何十万人の女性を組織的に強制連行し日本軍へ「献上」したことになります。さらに慰安婦強制連行に抵抗した暴動など一件も記録されていません。ならば自分の娘が、恋人が「日本人やその手先」に拉致され連れ去られるのを朝鮮の男たちは何の抵抗もしないでただ見ていたことになります。それこそ朝鮮民族は「世界史に類を見ない」無気力でふがいない民だ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慰安婦は挺身隊として連行されたのではなく、民間業者の募集に応じて戦場近くまで行き、合法的に仕事をした人たちでした。心ある韓国の皆さん、日本と朝鮮双方の祖先を貶める「慰安婦強制連行説」が歴史の歪曲と捏造に基づく虚構であり「事実無根」であることを世界に示し、両民族のプライドを守りましょう。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한국의 치욕. 허구인 것을 세계에 알려서 일본민족과 한민족의 명예를 지키자 .

한국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단체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그 HP 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 2 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 주의가 아시아의 여성 10— 20 만명을 국가제도로 기획 입안하고,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다. 」이라고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관헌은 당시 한반도에 극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19 년의 31 운동이후, 한반도에서는 일본군은 주둔지에서 나온 적이 없고, 1938 년 중일전쟁시작이후 일본인경관은 잇달아 군대로 소집되어서 전장에 가버렸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경찰관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습니다. 한국측 주장을 따르면, 극소수의 일본인의 명령을 따라서 조선인 스스로가 몇십만명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해 일본군에게 「진상 (進上) 」한것이 됩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에 저항한 폭동도 한 사건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 애인이 「일본인 또는 그 앞잡이」에 납치되어 데려 가버리는 것을 조선의 남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단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조선 민족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무기력해서 패기가 없는 민족이 되어 버립니다.



위안부는 정신대로서 연행된 것이 아니고, 민간 소개업자의 모집에 따라서 전장 가까이까지 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식을 가지신 한국사람 여러분, 일본과 조선 쌍방의 조상들을 모욕하는 「위안부 강제 연행설」이 역사의 왜곡이며 「사실 무근」인 것을 세계에 알려주고, 민족의 명예를 지킵시다.

当時朝鮮半島の警官はほとんどが朝鮮人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경찰관은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